

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4)

又不得於主法人 生輕薄想
(우부득어주법인에 생경박상하라)

(동차차호이언정 기가한만으로 유담무근하고)

因之於道 有障 不能進修 切須慎之
(인지어도에 유장이면 불능진수리니 절수신 지어다)

虛喪天日 欲冀心宗而求出路哉
(허상천일하고 욕기심종이구출로제리요)

論云 如人 夜行 罪人 執炬當路
(논에 운하되 여인이 야행에 죄인이 집거당로인데)

처음을 알 수 없는 옛부터 비롯처럼 익히는 애육과 성령과 어리석음이 마음에 얽히고 섶겨 있어 잠시 속어전도 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게 마치 하루 걸러 않는 학질과 같나니 (먹고 잠자고 일하는) 일제사에 모를지기 수행을 돕는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써 스스로 배를 깎는 아픔으로 막고 자립지언정 어찌 한가하고 게으른 마음으로 근본없는 잡담을 즐기면서 (금쪽같은) 세월을 허송하며 마음계치를 바리고 삼계로부터 벗어난 길을 구하고자 할 것인가.

若以人惡故 不受光明 墮坑落壑去矣
(악이인악고로 불수광명이면 타경락항거의라하)

但堅志節 責躬匪懈
(단견지절하여 책공비해하며)

또한 법사에 대해 업수히 여기는 생각을 내지 말라.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도에 장애가 생기어 닦아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니 지극히 삼가하고 삼가할지이다. 눈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밭길을 가는데 죄진 이가 쫓붙을 들어 앞길을 비춘다고 할 때에 만약 그 사람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 비취음을 마다할것 같으면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라 하였다.

知非違善 改悔調柔
(지비천선하여 개회조유어다)

聞法之次 如履薄冰
(문법지차에 예리박빙하)

勤修而觀力 轉深 鍊磨而行門 益淨
(근수이관력이 전심하고 연마이행문 이익정 하리라)

必須側耳目而聽法音 肅情禪而真造
(필수측이목이청연음이여 숙정진이상유치하 다가)

長起難遭之想 道業 恒新
(장기난조지상하면 도업이 항상신하고)

常懷慶幸之心 終不退轉
(상회경행지심하면 종불퇴전하리니)

설법들을 때는 그윽한 뜻을 맛보도록 불법 만남에 늘 감사하면 발심도 새로워

下堂後 墨坐觀之 如有所疑
(하당후에 묵좌관지하되 여유소어어든)

(상회경행지심하면 종불퇴전하리니)

博觀先覺 夕惕朝朝 不墮絲髮
(박관선각하며 석척조순하여 불탈사발이어 다)

다만 (술가한 : 발심한) 뜻과 절개를 굳게 다지고 스스로 책집해 게으르지 않도록 하고 그릇을 알면 바르게 고쳐며 회개하고 뉘우쳐 마음을 조어하고 늘 부드럽게 할 것이다.

如是 乃可能生正信 以道為懷者歎
(여시러야 내가능생정신하여 이도위회자여 인자)

부지런히 닦아 나아가면 관하는 힘이 더욱 깊어지고 단련하고 같이 나아가면 수행문이 더욱 청정해지나니 (역경 율회 중에)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천행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생각을 오레 오레 일으키면 도 닦는 일이 새록새록 새롭고 언제나 마음으로 발심한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경축할 일인가 생각하면 끝까지 풀라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설법을 들을 때는 마치 살얼음을 밟고 가듯이 간절히 이목을 기울여 깊고 깊은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마음 속의 번뇌티끌 밝히고 그윽한 뜻을 맛보도록 해야한다. 그런뒤 법사가 당에서 내려가면 묵묵히 앉아서 관하되 어떤 의심되는 게 있거든 선지식에 널리 물을 것이며 어떤 저네프로 간절히 안으로 찾아 의심나는 것을 털끝만큼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如是久久 自然定慧顯明 見自心性
(여시구구하면 자연정혜연명하여 전자심성하)

이와 같이 아예 가히 바른 믿음을 지녔다 할 수 있고 도로써 자기 마음자리를 삼는 자라 할 것이다.

用如幻智 還度眾生
(용여환비지하여 환도중생하)

無始習熟 愛欲微痴 纏綿意地
(무시습숙한 애욕에치이 전면의지하)

이와같이 오래오래 닦아 나아가면 자연히 정과 혜가 원만하게 밝아져 스스로 마음 성품을 보게 될 것이며 (비록) 법계가 공한 줄이나 자비와 반야의 지혜를 끌려서 중생을 (고해의 길에서) 풀이켜 제도하고 인·천 가운데 큰 복밭을 일구리니 부디 간절히 바라노니 모름지기 힘쓰고 힘쓸지이다.

暫伏還起 如隔日輝
(잠복한기하여 여격일하하)

一切時中 直須用加行方便智慧力
(일제시중애 직수용가행방편지혜력하)

痛自適護 豈可閒護 遊談無根
(통자적호호 담가안호호 유담무근)

몽상 여의면 반야

반야에 관해서 여러가지로 생각도 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반야는 바로 제법공(諸法空) 도리입니다. 그러나 다만 비어 있고 허무하다고만 생각할 때에는 반야바라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는 현상계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무상(無常)하고 공간적으로 비어 있어서 허무한 것이나, 모든 허망한 존재의 근본(眞) 성품인 진여불성(眞如佛性)은 무한 공덕을 갖추고 우주에 충만해 있는 바로 생명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실상(眞相)의 도리가 반야바라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야가 있어도 비로소 참다운 수행자이고 믿음이 없다면 수행자가 못됩니다. 반야는 어느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생명

입니다. 우리가 진도된 동상만 여의어 버리면 바로 반야의 생명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반야와 더불어 있어야 참다운 창조가 있고 또는 참다운 수행이 있습니다. 반야가 없다면 모두가 다 범부의 허물을 벗지 못하는 것이고 또는 어떤 행동이나 때로는 유류행(有漏行) 밖에는 못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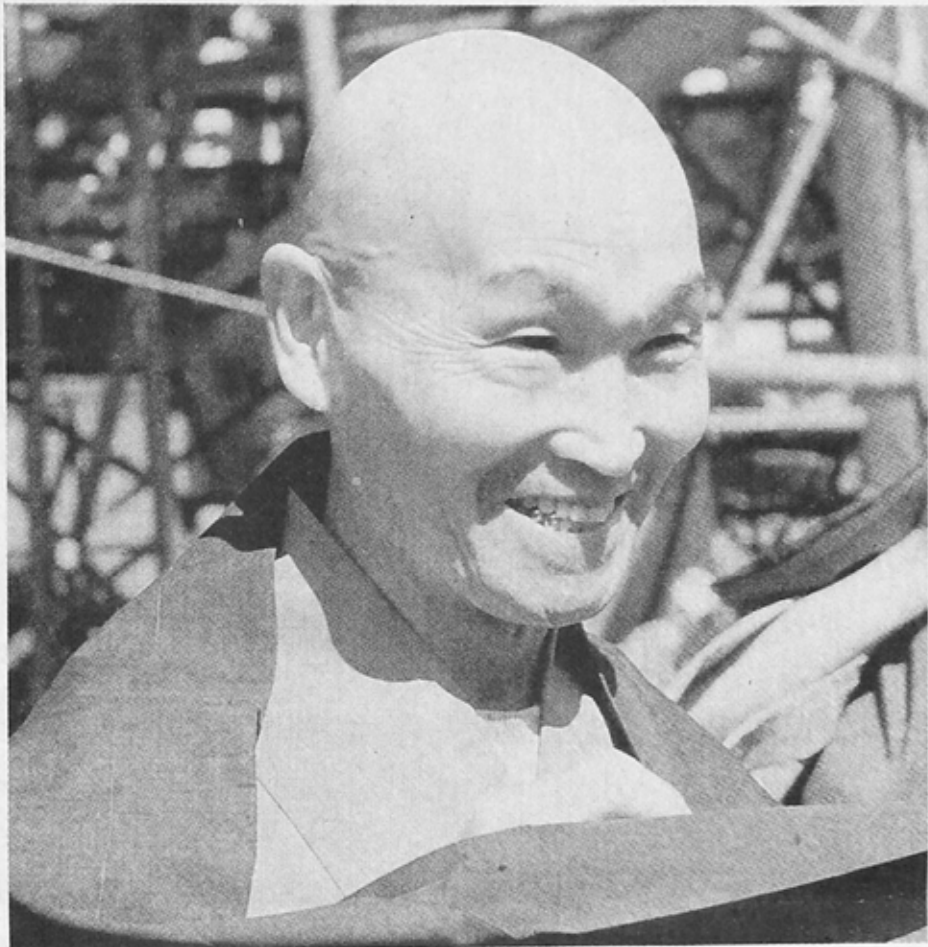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생이 보고 느끼는 일체 현상은 모두가 다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며, 범부인 한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진도된 동상입니다. 진도된 동상을 끌어 버리지 않고는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끌어야 할 것인가? 이런 수도의 방편이 화두(話頭)요, 염불(念佛)이며, 관법(觀法)이요, 주문(呪文)이며 계율입니다.

그러기에 진리에 마음만 사무치면 상을 여의고서 본체를 지향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수도정진하는 과정에서 물(水) 보고 깨달고 불(火) 보고 깨달고 달(月) 보고 깨달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직 우리가 체(體)를 여의지 않고 용(用)을 나누고 또는 용에서 본체로 돌아가는 간절한 뜻이 없으면 수행자의 자제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한눈 팔지 않고 근본 성품인 진여불성을 깨닫고 진여불성과 하나가 되고자 출가사문이 된 것입니다. 삼천대천 세계도 모두가 체에서 용으로 화현(化現)되었다가 다시 체로 돌아옵니다. 체와 용이 원래 둘이 아니지만 현상적인 세계는 체에서 용으로 세계입니다. 현상적인 용(用)이란 본래 본체에 입각해서 용(用)을 나누어 온전한 바른 통찰과 올바른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반야는 창조와 행복의 어머니”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 반야의 도리를 증명은 못하더라도 우선 이론적으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수행이 바로 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이론적인 자기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선오후수(先悟後修) 먼저 깨치고 뒤에 수행하는 것)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상(相)을 여의면서 체(體)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조(思潮)는 여러 갈래로 다원적이고 다양한 문화현상들이 하나의 도리, 하나의 근본 체성(體性)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분야에서나 모두가 다 개방적이고 보편적이고 공경적인 하나의 진리, 포괄적인 본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相)에서 체(體)로 또는 분열(分裂)에서 화합(和合)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화 스님 <태안사 조실>



문없는 깨달음의 길

따라서 이런 시대를 맞이하여 불교도 내 종파와 네 종파의 편견에서 벗어나 불법의 근본이자 우주의 법칙인 반야바라밀로 돌아가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여러가지 방편이 있는 것인데 우주 자체가 무량무변한 진여불성이므로 불성을 깨달는 대도(大道)에는 편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께 '무엇이 조주입니까?' 하고 법을 물으니 '몽론(夢論) 서론(序論) 남문(南門) 북문(北門)이라' 진실한 조주는 어느 한 편이 아니라 몽론이나 서론이나 남문이나 북문이나 어디에나 걸림이 없는 참성품이라는 말입니다. 불법은 이와 같이 위대한 길이기 때문에 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진리에 마음만 사무치면 상을 여의고서 본체를 지향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수도정진하는 과정에서 물(水) 보고 깨달고 불(火) 보고 깨달고 달(月) 보고 깨달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직 우리가 체(體)를 여의지 않고 용(用)을 나누고 또는 용에서 본체로 돌아가는 간절한 뜻이 없으면 수행자의 자제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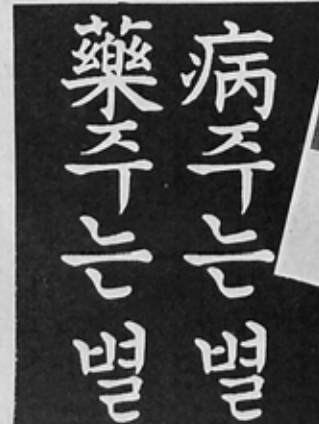
우리는 오로지 한눈 팔지 않고 근본 성품인 진여불성을 깨닫고 진여불성과 하나가 되고자 출가사문이 된 것입니다. 삼천대천 세계도 모두가 체에서 용으로 화현(化現)되었다가 다시 체로 돌아옵니다. 체와 용이 원래 둘이 아니지만 현상적인 세계는 체에서 용으로 세계입니다. 현상적인 용(用)이란 본래 본체에 입각해서 용(用)을 나누어 온전한 바른 통찰과 올바른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본체란 가명(假名)과 가상(假相)을

부디 진리의 등불 되시길 빌며 1천만 불자님들께 바칩니다.

우뚝 선 仁山醫術의 큰 봉우리

藥이 어떨다, 病이 어떨다 따는 사람은 많지만 약성 난치병 불치병을 휘어잡은 의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설 속의 편자(扁鵲), 화타(華佗) 만큼이나 죽음의 구렁에서 병자를 살려낸 사람, 천금보다 소중한 자신의 경험의방을 모두 공개한 참 醫者, 현대의 불치병을 다스렸던 영원한 神醫 - 仁山 김일훈. 그의 敎療一生과 神藥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소금有害論'의 코페르니쿠스적 반전 일으킨 대저술

신비의 약소금 - 죽염의 제조원리·효능·활용법

죽염요법

김윤세 지음 / 광재원 펴냄 / 9,000원

인산 선생이 창제한 죽염의 제조원리와 응용법. 선생의 가르침 그대로 죽염을 빚고, 그 약성을 이용하는 갖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선생의 의문 전수자이자 가업을 대를림한 김윤세가 펴냈다. 요약본이 3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일본어로 번역판 발행, 이어 영어 중국어 번역판 발간 예정.

"의료인도 처방도 약도 필요없는 세상..."

난치병 불치병 다스리는 仁山醫論의 집대성

神藥

김일훈 지음 / 광재원 펴냄 / 7,000원

약성으로 가득한 한반도의 신비를 풀어, 지천에 깔린 동식물과 약재의 합성으로 온갖 병을 다스리는 법을 제시한 책. 화학약독 및 화학물질의 범람으로 급증하는 각종 공해병 성인병 퇴치를 위해, 83년간 펼쳐온 의문의 정수를 집대성한 책. 현대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던져준 그 유명한 책.

꺼지지 않는 등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동사일전》은 이땅의 정신사에 빛을 남긴 인물들의 구도자적 삶과 득도와 죽음에 대한 기록이다. 1천6백년전 한반도에 불교가 전해진 이후 해남 대흥사의 伯梵海 선사에 의해 199명의 전기가 편찬(1894년) 되기까지 1천5백년의 세월이 소모됐고 번역자에 의해 한글로 옮겨지기까지에는 또 1백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7년에 걸친 자료수집과 정리, 번역작업 끝에 우리는 1천6백년의 시간과 한반도라는 공간 속에서 199명의 구도자들이 이룩한 득도체험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오랜 세월을 이어 전해진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伯梵海 선사가 편찬했던 199명 구도자의 전기 처음 한글로 번역

불교서점,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736-3171

제24회 문화부 추천도서 제2회 불교문화상 수상도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梵海撰, 金倫世 譯 國판 720쪽 / 값 1만원 度濟院 110-300 서울 영등포구 영등로 197-26 영등포동 1가 902호 전화: (02) 736-3171 팩스: (02) 732-3919

東師列傳

그림자 없는 나무로 물결거품은 태운다